

□ 특집 80년대와 여신도회

여신도회의 미래

박 영 숙

〈전 교 육 위 원 장〉

세계적으로도 큰 변혁을 예상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적인 전환기가 되며,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는 8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의의 깊다고 본다. 더욱이나 우리나라의 80년대는 어떤 국면에서는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어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하는 여성들의 연합체인 여신도회의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반성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오늘의 여신도회전국연합회는 11개 연합회 산하에 613지회와 회원 2만5천을 헤아리는 조직체로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를 반성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연합함으로써의 힘은 있었고, 온인류를 섬기는 책임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속하고 있는 여신도회는 교회가 있는곳에 하나의 부설기관으로서 으레히 생기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도 가족적인 공동체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교회에서의 역할은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의 연장이며 자선적인 봉사 활동과 주도성이 결여된 연구활동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근년의 여신도회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해 전개된 일반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인식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절박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탓으로 큰 성과는 없었다. 타단체와 공동으로 가족법개정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교회내에서는 여장로추대 또는 여교역자의 처우문제와 여신도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관심등이 높아졌다. 연합회수준에서는 간접적이기는 하였으나 구속자와 근로여성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가담하면서 움직임의 폭과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가고 있다.

70년대의 사회분위기의 특징이었던 극에 달한 소비미덕의 풍조와 모든 자유가 유보된 위축된 상태에서 여신도회가 역사의식에 철저하지 못했으며 회원들은

신비에 도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자녀교육문제, 청소년문제, 인권유린 및 언론탄압사태등이 일어나도 방관하거나 이기적인 해결책이나 모색하는등 여신도회는 조직체이면서 연합된 힘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은 것을 크게 반성하여야 할것이다.

80년대의 여신도회의 선교과제

1) 정치적 전환기에 대한 책임

80년대는 정치발전의 세대이며 민주화요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개헌작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만들어지고 절차가 밟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시민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시민의식이란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인의식을 상실당한 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습성에 젖어서 앞으로도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채 살기가 쉽다. 여신도회는 바로 이런점을 감안해서 민주시민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오늘의 경제난국은 해묵은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호전될 조건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말하듯이 잠깐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민족은 빈곤을 이겨낸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이겨낼 의지가 있다. 단 밀어닥친 난국을 참아서 이겨내는 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새나라 건설을 위해 다갈”라는 것이다.

집단활동체인 여신도회는 우선 정부로 하여금 언론기관의 올바른 기능을 통해서 경제시책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잘못이 인정되면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지켜 보아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풍요사회



의 소비풍조를 깨고 현실을 직시하는 생활을 위해 새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자세가 물질적인 자원(특히 석유) 소비는 극소화 시키는데 반해 인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거기에서 얻어진 것을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의 기본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애하는 함께 참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3) 교육위기 해소를 위한 과제 :

오늘의 교육의 문제는 그 제도나 내용이 잘못 되어 있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증가된 학생수와 교육열에 수용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대학에 가지 않고도 보람있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학부모는 가정경제를 송두리 채 희생하면서도 과외공부를 시켜야 하며 학생들은 인간이 되기에 앞서 대학입학을 위해 시험준비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험답안지 하나로 인간평가를 받아 삶의 양상이 정해진다. 이러한 결과로 소수는 이기적이고 경쟁심의 화신으로, 3배가 넘는 많은 수는 인생의 낙오자로 눈총을 받게 된다.

근래의 교육문제해결의 방향은 대학입학위주에 치중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청년들의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의 교육의 위기는 해마다 연소화, 대형화, 집단화 또는 폭력화되어가는 청소년의 범법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하여 준다.

어머니들이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 문제가 말로 여신도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 또는 범여성적 운동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이다.

4)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과제 :

70년대에 시작된 어쩌면 인류가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경고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최근의 신문보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선 여신도회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분명히 알고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실천하도록 하는 한편 대정부 건의 및 사회여론제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고갈 그리고 환경오염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불가치한 경제성장 그리고 크게 잘못된 생활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세계인구를 지구가 이제는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인구증가는 연쇄적으로 식량문제와 도시화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이제는 믿어서는 안된다.

물가치하고 비윤리적인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극심한 소모로 자원을 바닥냈고 그 댓가로 무서운 환경오염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 이제는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여신도회는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불탄서와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까지 불리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의 안전대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건설문제에 따른 이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재벌간의 싸움이나 구경하고 있어서 되는 문제인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계는 기술과학의 발달과 높은 생활수준을 추구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빈곤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이었던 풍요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소유가 적을 수록 자유하다는 생활양식이 번져가고 있고 "못가진다"가 아니라 "안가진다"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에서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이해가 새로워진다.

물량적인 발전과 팽창주의에 급급하는 남성위주의 문화는 인류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왔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에 맹종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동을 가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생명을 낳고 보존하는 힘인 모성의 발휘가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남성의 반작용과 일부여성해방가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신도회가 주저할 수 없는 과제이다.

5) 탈석유문화에 대비한 준비 :

석유와 석탄은 수억년 걸려서 만들어진 재생불능의 화석연료로서 매장량의 한계가 있다. 20세기 중엽에 나타난 석유문명은 무서운 속도로 석유를 삼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석유는 20~30년후에, 석탄은 100년 후면 바닥이 난다고 한다. 인류는 계속 살아 남아서 석유의 혜택을 받아가며 살 권리가 있는데 20년후의 후손들은 우리를 원망하며 죽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체에너지의 출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석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20~30년의 단기적인 대책은 있을 수 있으나 100년이라는 장기적 에너지 대책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대체에너지의 희망이 희박하다면 인류는 대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특집 80년대와 여신도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한계가 있는 지구를 벗어나서 무한계의 우주로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석유문명을 벗어나서 소규모의 농도를 주로하는 인간과 자연사회의 조화를 수축으로 하는 인간존중의 문명으로 전환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명은 오늘의 산업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며 농촌문제가 획기적으로 변혁될 가능성이 보인다. 공업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도시집중도 농촌경시의 정부정책도,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도 크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농촌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신도의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

6) 통일과제에 대한 우리의 과제 :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는 경제난국의 해소를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80년대의 과제의 하나이다.

하루 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 민족통일은 역사의 필연성이므로 기독교공동체인 교회가 이 과제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신도회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신도회의 자체정비

여신도회는 80년대의 선교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체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의 집단체에서 연합된 하나의 압력단체로서의 사회적인 힘을 가진 목적의식이 뚜렷한 집단체로 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1) 여신도회 목적의 바른 이해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 목적 속에 있는 6개의 동사를 바로 이해하는 일이 여신도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본다.

① 부르심을 받아-장망성인 세상에서 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 그리고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다.

② 연합하여-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하나님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힘을 합한다. 여신도회는 연합된 힘을 가지고 교과주의를 초월하는 일에도 앞장 서야 한다.

③ 배우며-나를 위한 존재로 살기위해, 때를 분간할 줄 알기 위해, 내가 서있는 그 위치를 알기 위해 배운다.

④ 사귀고-주님의 삶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숙명적인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⑤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교회의 선교영역은 전세계이며 교회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세상전체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주전체의 구원을 위해 힘쓴다 사회구원 없는 개인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우주구원 없는 인류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⑥ 복음을 전한다-개인 구원을 위한 전도만이 아니라 사회구원에 역점을 둔 선교활동으로서 하나님나라가 온다는 것을 선포한다. 악한 세력과 싸워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했다는 기쁜소식을 전한다.

2) 여신도회 조직력 강화 :

구슬은 서말이라도 꿰야 구슬이다. 613교회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회개혁의 의지를 가지게 하며 연합된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동성을 구비한 조직체로 만들어야 한다.

3) 각 연합회의 행정기능 강화 :

여신도회는 어느 여성단체보다 풍부한 지도력(집사, 장로)과 시설(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면서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연합회는 80년대의 선교과제를 위해 회원의 동력화, 지도력의 활성화, 실무자의 확보, 사무기능의 정비, 여신도회운영의 제도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4) 전국연합회기능 및 자원의 재조정 :

전국연합회는 조직(기구)과 자원(지도력, 재정등)을 총 점검하여 낭비를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하여야 한다. 각 연합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그 기능의 효율을 위해 배다니평신도 교육원의 운영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과감히 개선해야한다.

5) 활동전개의 방법 다양화 :

80년대의 선교과제수행은 범국민운동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므로 그 방법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홍보 활동의 강화가 요청된다.

금년도의 우리회의 표어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이다. 이것은 우리의 절규이며 간절한 기도이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이며 손이고 발이 되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연합하여 다 함께 하나님나라 건설에 이바지 하는 일에 헌신하여야 한다.

이동장차는 2박3일의 과정이며 신청은 석달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